

2°C vs 1.5°C

0.5°C 더!

낮춰야 한다고?

충격..



“파리협정”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전지구 평균온도상승 폭을 2°C보다 낮게!
더 나아가 1.5°C까지 제한하자는 목표에 전 세계가 합의했었지요!

2°C 도
위험해서
안돼!!

1.5°C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몰라..

나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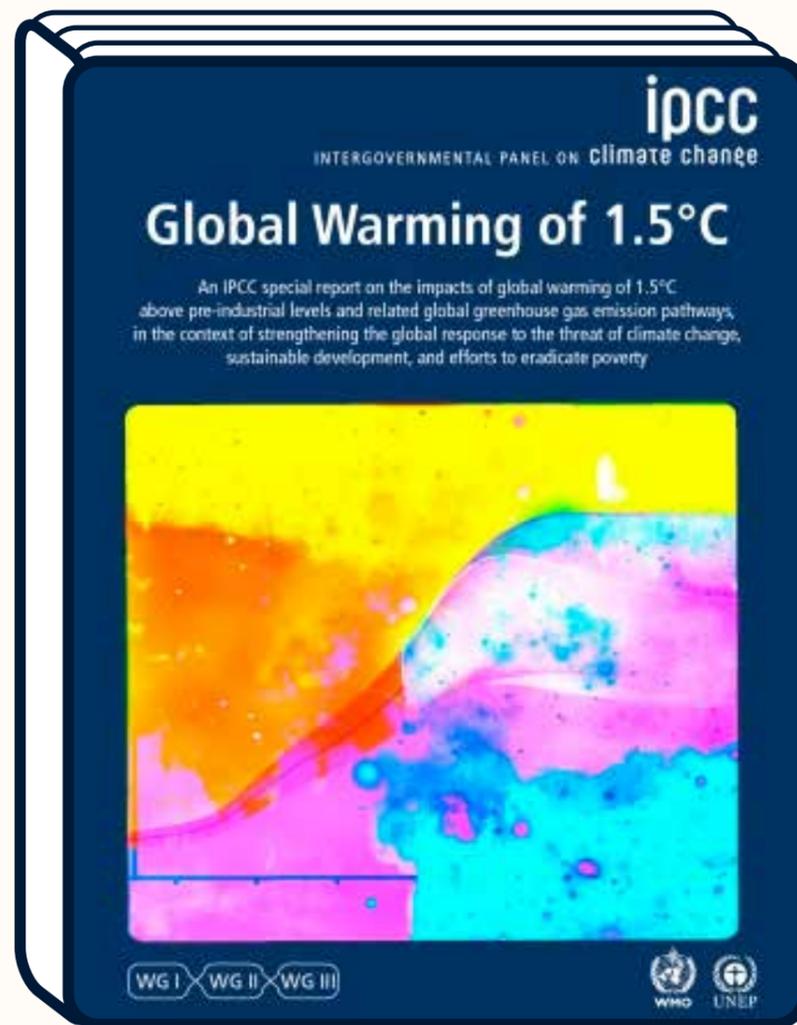
몰라..?

이런... 아무도 모른다!!!!!!

그리하여...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탄생했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48차 IPCC 총회에서 말이죠...!



hosted by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기상청 인천광역시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 작성을 위해 6,000건 이상의 과학적 연구가 인용되었고
전세계 전문가와 정부 검토위원 수천 명이 참여했어요!

「지구온난화 1.5℃」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전지구 평균온도가 1.5℃ 상승했을 때의 영향,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2100년까지 1.5℃로 제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왜 2℃가 아닌 1.5℃를
지켜내야 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후모델 전망에서 지역적 기후특성은
지구온난화 1.5°C 때보다 2°C일 때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구온난화 1.5°C

지구온난화 2°C

“지구온난화
무서워!”



10cm

“지구온난화
너무 무서워!!!!”



2100년 해수면 상승폭

해수면이 10cm나 더 높아지는 2°C 온난화 상황에서는
무려 천만 명의 사람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지구온난화 1.5°C



지구온난화 2°C



생태계 위협성

2°C 온난화 상황에서 서식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감소되는
동식물들의 비율은 1.5°C의 두 배!

지구온난화 1.5°C



지구온난화 2°C



1.5°C 온난화에서는 100년에 한 번 빈도로 여름철 북극해빙이 소멸되며,
2°C 온난화에서는 10년에 한 번 여름철 북극해빙이 완전 소멸됩니다

지구온난화 1.5°C

지구온난화 2°C

산호섬이라더니...
산호는 어디?



2100년 산호 소멸

1.5°C 온난화 때 산호는 70~90%가 소멸됩니다.
2°C 온난화에서는 **무려 99% 이상**의 산호가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2°C 온난화는

1.5°C 온난화 경우보다 훨씬 더!

인간이 생활하는 대부분 분야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 및 생계



식량과 물 공급



안전



경제 성장



지구의 대부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0.5°C 차이의 무서움!

제대로 느끼셨나요?

지구온난화 1.5°C와 2.0°C 주요 영향 비교

구분	1.5°C	2°C
고유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육상 생태계	중간 위험	높은 위험
대규모 특이 현상	중간 위험	중간-높은 위험

0.5°C의 차이로 지구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030~2052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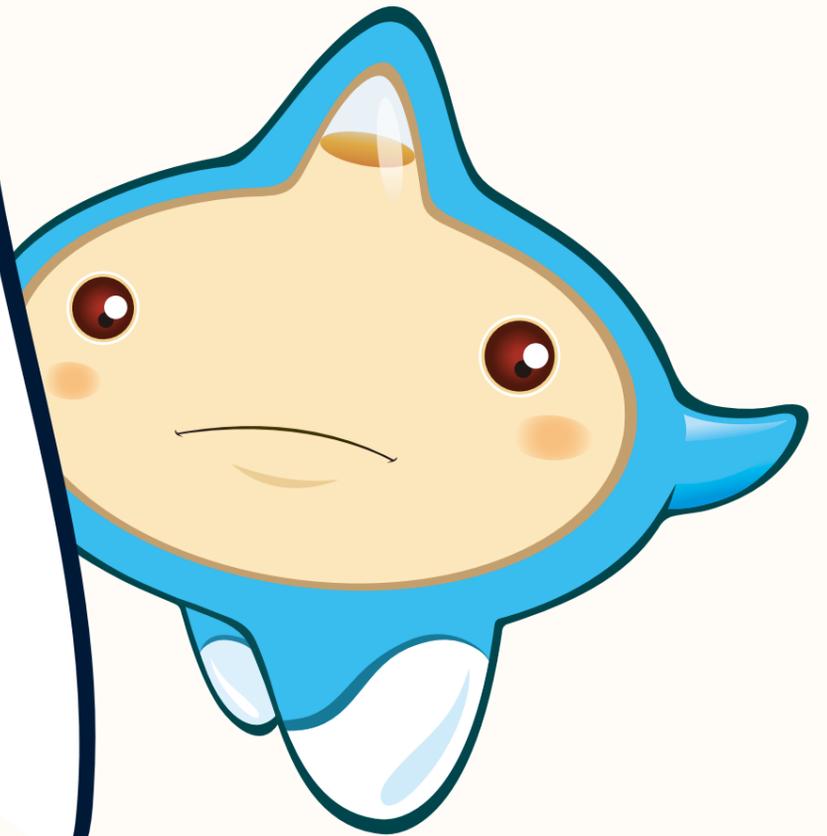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1.5°C 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 협정에 따라 각 국가에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해도 2100년엔?



산업화 이전 대비 3°C 상승!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 강하게 '설정'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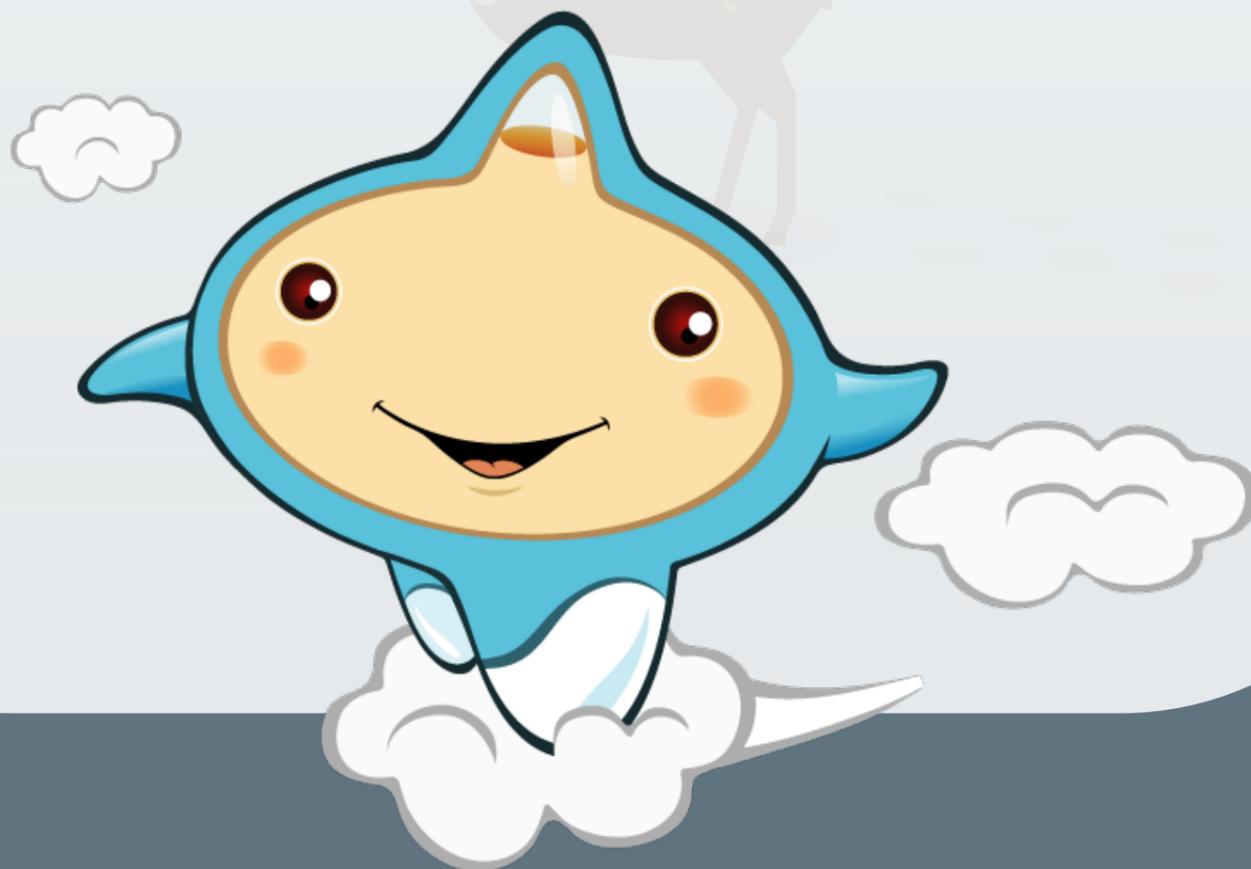


1.5°C 제한선을 지키기 위해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지구온난화 감속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사는 지구!
함께 지켜보아요!



지구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면?



에너지 - 에너지원 비중 변화

2050년까지

- ① 전력의 70~85%를 재생 에너지가 공급
- ② 화석연료 비중 대폭 축소



수송 - 에너지원 저탄소화

저탄소 에너지원 비중은
2050년까지 35~65% 상승



산업 -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신기술과 전력화를 통해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75~90% 감축